

##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Pathways from Interparental Conflict to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through  
Maternal Support and Control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조주연(Joo-Yon Cho)<sup>1)</sup>

도현심(Hyun-Sim Doh)<sup>2)</sup>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athways from interparental conflict to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through maternal support and control and/or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A sample of 340 high school students (166 boys and 174 girls) in Incheon completed questionnaires on interparental conflict, maternal support and control,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and problem behavior.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interparental conflict had a direct influence in bo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dicating that adolescents who perceived higher levels of interparental conflict had more problem behaviors. Regarding pathways from interparental conflict to problem behavior through maternal support and control and/or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dolescents perceiving higher levels of interparental conflict reported higher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lower support and behavioral control. This was followed by a lower level of quality in terms of their peer relationships; the lower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resulted in more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terparental conflict and maternal support and control play crucial roles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respectively.

---

\* 본 논문은 2010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Key Words** : 부모간 갈등(Interparental Conflict),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Maternal Support and Control), 또래관계의 질(Quality of Peer Relationship), 문제행동(Problem Behavior).

## I. 서 론

최근 들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 행동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가출로 인해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17-19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 사고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15-18세의 우울 및 자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데(청소년위원회, 2007), 이는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의 문제행동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사회문화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역기능의 정도가 심하고 자신의 발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며, 이 시기의 문제행동은 이후 성인기의 사회 부적응을 예측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Graham & Rutter, 1973; 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개인을 넘어 학문적,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문제행동은 크게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은 주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경우가 많다(예 : 박선영, 2009; 이상균, 2008; Gryczkowski, Jordan, & Mercer, 2010). 그러나 내면화 문제행동은 이후 공격성,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김청송, 2007; Novotny & Burstein, 1974),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보다 통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문제행동은 물론 관찰하기 어려운 내면적 문제행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환경요인은 크게 가정환경과 또래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가정환경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서(Hawkins, Arthur, & Catalano, 1995; Patterson, 1982; Rodgers & Rose, 2002), 그 가운데 부모간 갈등은 중요한 변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Blodgett-Salafia, Gondoli, & Grundy, 2008). 부모간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은 높은 우울을 보였으며(이혜수, 2003; 차정은 · 이지연 · 황상희, 2009), 부모간 갈등에 자주 노출되고 갈등의 정도가 심각하며 해결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 자녀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많이 발견되었다(양희정, 1999; Grych, Sied, & Fincham, 1992). 그러나 부모간 갈등이 높아도 갈등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부모간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는 청소년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덜 경험하였다는 연구결과(Kim, Jackson, Conrad, & Hunter, 2008)가 보고되고 있어, 부모간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부모간 갈등은 또한 외현화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있어, 부모간 갈등 시 부모가 파괴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보이고 슬픔이나 화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보일 때, 청소년의 공격성이 증가하였다(Cummings, Geoke-Morey, & Papp, 2004). 또한 부모간 갈등에 자주 노출되고 부모간 갈등의 강도가 높으며 해결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 청소년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다(이혜수, 2003; 차정은 외, 2009;

Grych et al., 1992). 이와 같이 부모간 갈등은 단지 부부만의 어려움에만 그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부모 보고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모간 갈등에 대한 부모의 지각보다는 아동의 주관적인 지각이 아동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Grych & Fincham, 1990), 아동의 발달을 예측하는 데 더 중요한 변수로 보고되어(Vandewater & Lansford, 1998), 본 연구는 부모간 갈등에 대한 청소년 자녀의 주관적 지각을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또 다른 가정환경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매우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ubin & Mill, 1991; Webster-Stratton & Herbert, 1994). 독립성의 증가와 정체감 형성 및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보전대 특히 어머니의 지지와 통제는 이 시기의 중요한 양육행동 요인이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청소년은 자아비난,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보다 많이 경험하였으며(박성연 · 이은경 · 송주현 · Soenens, 2008; Gray & Steinberg, 1999), 부모의 감독이 낮을수록 여자 중학생이 경험하는 우울의 수준이 높았다(박기원, 2009).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으며(도현심 · 김민정 · 박보경 · 황영은, 2005), 부모의 감독이 적을수록 청소년의 비행, 욕설 및 흡연과 같은 문제행동이 증가하였다(서찬란 · 이형실, 2006; 전영실, 2002). 또한 부모가 수용적이고 행동 통제를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및 학교일탈과 같은 행동문제가

감소하였으며(Gray & Steinberg, 1999),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하였다(조혜리, 2009). 이와 더불어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에게서 감독을 덜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었다(손석한 · 노경선 · 허묘연 · 정현욱 · 이소희 · 김세주, 2001).

이와 같이, 어머니의 지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며(서찬란 · 이형실, 2006; Gray & Steinberg, 1999), 이러한 결과는 일관적으로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어머니의 통제는 상대적으로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찍이 Schaefer(1965)와 Barber(1996)는 그 이유를 통제가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접근하였고, 통제를 표현 억압, 죄의식 유발과 같은 부정적 의미의 심리적 통제와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하는 긍정적 의미의 행동 통제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제의 개념을 구분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드물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지지와 더불어, 심리적 통제 및 행동 통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또래환경이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며 가정 밖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또래관계가 확장되고, 또래의 가치관이나 행동의 영향력이 매우 높아지게 되면서 또래의 중요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강해진다. 실제로 또래에게 지지를 받거나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청소년은 사회적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정옥분 · 임정하, 1997; Rogers & Holmbeck, 1997). 특히, 친구의 수가 적고 또래들에게 수용되지 못해도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 경우 문제행동이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들(Parker & Asher, 1993; Vandel & Hemb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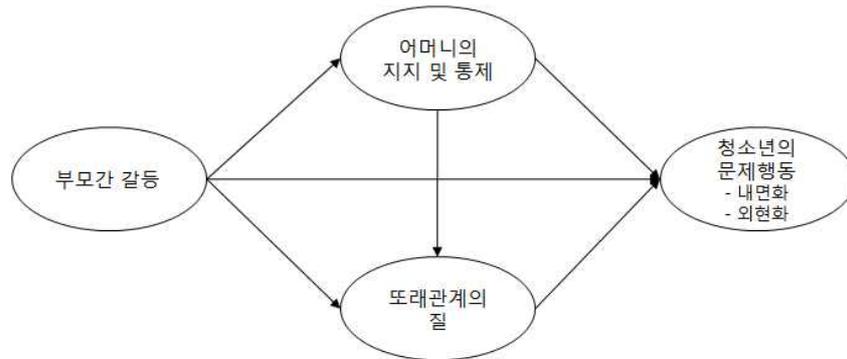
1994; Waldrip, Malcolm, & Jensen-Campbell, 2008)은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또래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편이다.

한편,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의 또래관계의 질은 문제행동과 마찬가지로 부모간 갈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부모간 갈등 상황에서 자녀는 부모가 사용하는 행동 전략을 관찰함으로써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이를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부모간 갈등이 높은 아동은 또래에 대한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였다(박보경, 2002; 정은희·이미숙, 2004; 황은영, 2008). 부모간 갈등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의 우의, 상호친밀과 같은 긍정적 요인이 낮아지고, 또래와의 갈등,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김혜정, 2005; 최지영·박경, 2007), 부모간 갈등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관계의 질이 부정적 이라 예측된다.

또한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도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자녀와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자녀의 이야기에 반응을 잘 해주는 등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게 되면 자녀는 가까운 또래들에게도 지지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또래관계의 질을 증가시켰다(Bryant & Elder, 2002).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합리적 및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였고(정미경, 2002), 긍정적인 친구기능이 높아졌으며(유윤아, 2005), 우의 및 사회적 지지와 같은 또래관계의 질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였다(윤명주, 2003). 이처럼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또래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통제의 경우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 적대적, 비합리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했다는 연구결과(정미경, 2002)를 비롯하여, 어머니가 심리적 및 강압적 통제를 하여도 사회적 능력이 높아지거나(한미현, 2005), 또래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임경원, 1997)가 보고되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이러한 비일관적 연구결과는 통제의 정의가 비일관적인 점에 근거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어머니 통제의 하위 요인으로 심리적 통제와 행동 통제 모두를 포함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는 또한 부모간 갈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덜 따뜻하고 비일관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았고 자녀를 거부하거나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으며(Davies & Cumming, 1994; Fauber, Forehand, Thomas, & Wierson, 1990), 부모간 갈등은 어머니의 온정성과 자율성 존중을 감소시켰다(이정미·이양희, 2007). 정상집단과 신경정신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부모간 갈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비교한 연구(강차연·장연집, 1999)에서는 양 집단의 어머니들 모두가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통제를 많이 하였다. 또한 부모간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높고 해결이 잘 안된다고 생각할수록 아동은 어머니가 적대적이고 거부적이며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으며, 특히 부모간 갈등의 강도 및 빈도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간의 관계는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보다 높은 상관을 보였다(노지형·



<그림 1> 연구모형 :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송현주, 2007).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간 갈등은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예측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기 이전의 부모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양자간의 관련성이 청소년기에도 발견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그리고 또래관계의 질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간의 상호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이러한 변인들간의 경로를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일부 변인들간의 경로가 보고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줄어들고 이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켰으며(홍순혜, 2004; Benson, Buehler, & Gerard, 2008; Krishnakumar, Buehler, & Barber, 2003), 청소년으로 하여금 또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고 지각하게 하였다(이정미·이양희, 2007; 홍주영, 2002).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또래관계의 질을 낮추고 이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켰다(김주연, 2009). 이와 같이 일부 변인들간의 경로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등 모든 변인을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는 드

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예측 변인을 가정환경과 또래환경 측면으로 나누어,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연구문제>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I시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각각 2곳의 1학년(212명)과 2학년(128명)에 재학 중인 340명의 남녀 청소년들(남 : 166명, 여 : 174명)이다. 고등학교 1, 2학년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의 가출로 인한 쉐더 입소비율과 우울 및 자살비율 등과 같은 문제

행동이 가장 높았던 점(청소년위원회, 2007)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각각 54.1%와 63.2%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25.9%, 어머니의 경우 가정주부가 37.1%로 가장 많았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또래관계의 질 및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네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척도는 청소년 자신에 의해 보고되었다.

### 1) 부모간 갈등

부모간 갈등은 Grych, Seid와 Fincham(1992)의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K-CPIC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성질 요인인 빈도(6문항), 해결(6문항), 강도(7문항)만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요인들이 아동의 적응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Grych et al., 1992)에 근거한 것이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빈도의 경우, '나는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을 자주 본다', '우리 부모님은 거의 다투시지 않으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결의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은 다투고 나서는 대개 화해하신다',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에도 여전히 화를 풀지 못하신다' 등이며, 강도는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신다', '우리 부모님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조용히 대화로 의논하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1점(그렇지 않다), 2점(약간 그렇다), 3점(매우 그

렇다)으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간 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빈도'요인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1개의 문항이 제외되어, 총 18문항을 본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alpha$ 는 빈도 .84, 해결 .83, 강도 .82이었다.

### 2)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는 Barber, Stolz와 Olsen(2005)이 사용한 청소년 보고용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를 역번역(backtranslation), 즉 본 연구자들이 국문으로 번역한 후 영어권 원어민이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지(10문항), 심리적 통제(8문항) 및 행동 통제(5문항)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지지의 경우, '나는 내 걱정거리를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자주 미소 지어주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통제의 경우에는 '나의 어머니는 항상 어떤 일에 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려하신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무언가 말하려고 할 때 마다 화제를 바꾸신다' 등이며, 행동 통제는 '나의 어머니는 내가 밤에 어디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나의 어머니는 내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1점(그렇지 않다), 2점(약간 그렇다), 3점(매우 그렇다)으로 평가되며, 세 가지 요인들의 방향성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심리적 통제 요인을 역채점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지지와 행동 통제가 높고 심리적 통제가 낮은 것과 같이 양육행동이 보다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Cronbach's  $\alpha$ 는 지지 .90, 심리적 통제 .75, 행동 통제 .73이었다.

### 3) 또래관계의 질

또래관계의 질은 김진경(2002)이 Furman과 Buhrmester(1985)의 NRI(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척도 중 또래와의 관계에서 주로 보이는 특성만을 추출하여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의, 상호친밀·공감대, 정서적·사회적 지지, 갈등의 해결, 인기, 또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내용(20문항)과 갈등·대립, 일방적 주도, 철회·고립, 무시, 또래관계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 내용(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나는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 때 말다툼을 하거나 싸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같이 부정적 내용을 역채점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각 잠재변수당 2개 이상의 측정변수가 필요하다는 Little과 동료들(2002)의 제안에 근거하여 문항과 구성개념간의 균형(item-to-construct balance)을 이용한 파슬링(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요인간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무작위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요인을 나눌 수 있다는 제안을 토대로 요인을 4개로 나눈 다음, 요인 적재치가 가장 높은 문항 4개를 각 요인에 차례대로 할당한 후 그 다음으로 높은 적재치를 가진 문항 4개를 앞의 순서와 반대로 배당하는 방법을 반복하여 총 4개의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또래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상호적이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또래관계의 질1’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1개 문항과 ‘또래관계의 질2’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3개 문항, ‘또래관계의 질3’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3개 문항,

‘또래관계의 질4’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2개 문항이 제외되어, 총 31문항을 본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네 개 요인 각각의 Cronbach's  $\alpha$ 는 .74이었다.

### 4) 문제행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YSR(Youth Self Report)을 오경자·하은혜·이혜련과 홍강의(2001)가 표준화한 K-YSR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 문제행동인 우울/불안(15문항), 신체증상(10문항) 및 위축(7문항)과 외현화 문제행동인 공격성(19문항) 및 비행(11문항) 등 총 6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우울/불안의 경우 ‘외롭다고 느낀다’, ‘잘 운다’ 등으로, 신체증상의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있다’, ‘매우 피곤하다고 느낀다’ 등으로, 위축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격성의 경우, ‘말다툼을 자주 한다’, ‘남에게 못되게 군다’ 등으로, 비행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1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2점(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3점(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Cronbach's  $\alpha$ 는 우울/불안 .85, 신체증상 .83, 위축 .76, 공격성 .84, 비행 .78이었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를 위해 2009년 7월에 I시에 위치한 총 4곳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1, 2학년을 선정하여 4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

였다. 398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약 99%의 회수율),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와 한쪽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각각 52부와 6부를 합한 58부를 제외하고 총 340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는데,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적합도 지수 중 RMSEA, TLI, CFI를 고려하였다. 특히 RMSEA는 표본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하며  $\chi^2$ 검증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수로 활용빈도가 상당히 높다. RMSEA는 보통 .05 이하일 경우 그 모델은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하고 .08 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TLI와 CFI는 적합도 지수가 .90 이상 일 때 그 모델의 적합성이 좋다고 해석한다(홍세희, 2000).

### III 연구결과

#### 1. 측정모형 분석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어떠한 경로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전에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나누어 확인적 요인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1) 내면화 문제행동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그리고 또래관계의 질과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RMSEA = .058, TLI = .956, CFI = .967로 모두 기준치를 충족시켜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는 모든 변인이 .4이상

<표 1>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 내면화 문제행동

잠재변인	측정변인	B	$\beta$	SE	C.R	p
부모간 갈등	빈도	1	.879	-	-	-
	해결	.779	.758	.053	14.713	***
	강도	.765	.788	.050	15.258	***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지지	1	.750	-	-	-
	심리적 통제	.589	.568	.076	7.752	***
	행동 통제	.804	.613	.100	8.066	***
또래관계의 질	또래관계의 질1	1	.777	-	-	-
	또래관계의 질2	1.236	.861	.073	16.937	***
	또래관계의 질3	1.171	.802	.075	15.591	***
	또래관계의 질4	1.229	.884	.071	17.415	***
내면화 문제행동	우울/불안	1	.945	-	-	-
	신체증상	.638	.624	.055	11.584	***
	위축	.903	.773	.064	14.204	***

\*\*\*p < .001.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 외현화 문제행동

잠재변인	측정변인	B	$\beta$	SE	C.R	p
부모간 갈등	빈도	1	.872	-	-	-
	해결	.791	.763	.054	14.723	***
	강도	.774	.791	.051	15.199	***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지지	1	.739	-	-	-
	심리적 통제	.615	.584	.077	7.961	***
	행동 통제	.805	.605	.099	8.119	***
또래관계의 질	또래관계의 질1	1	.777	-	-	-
	또래관계의 질2	1.232	.859	.073	16.922	***
	또래관계의 질3	1.167	.800	.075	15.561	***
	또래관계의 질4	1.232	.887	.070	17.496	***
외현화 문제행동	공격성	1	.612	-	-	-
	비행	1.280	.957	.097	13.244	***

\*\*\* $p < .001$ .

으로 나타나 본 측정변인은 잠재변인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 2) 외현화 문제행동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그리고 또래관계의 질과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 = .049, TLI = .969, CFI = .977로 나타나, 모두 기준치를 충족시켜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는 모든 변인이 .4이상으로 산출되어 본 측정변인은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 2. 상관관계 분석

### 1) 내면화 문제행동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그리고 또래관계의 질과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표 3). 즉, 부모간 갈등이 높고

<표 3>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 : 내면화 문제행동

잠재변인	1	2	3	4
부모간 갈등	-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46***	-		
또래관계의 질	-.23***	.37***	-	
내면화 문제행동	.35***	-.31***	-.32***	-

주)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가 높음은 어머니의 지지와 행동통제가 높고 심리적 통제가 낮음을 의미함.  
\*\*\* $p < .001$ .

어머니의 지지 및 행동통제가 낮고 심리적 통제가 높으며 또래관계의 질이 낮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은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간 갈등이 높고 어머니의 지지 및 행동통제가 낮고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지지 및 행동통제는 낮고 심리적 통제는 높았다.

### 2) 외현화 문제행동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그리고 또래관계의 질과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었다

<표 4>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 : 외현화 문제행동

잠재변인	1	2	3	4
부모간 갈등	-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47***	-		
또래관계의 질	-.23***	.37***	-	
외현화 문제행동	.30***	-.37***	-.28***	-

주)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가 높음은 어머니의 지지와 행동통제가 높고 심리적 통제가 낮음을 의미함.  
\*\*\* $p < .001$ .

(표 4). 즉, 부모간 갈등이 높고 어머니의 지지 및 행동통제가 낮고 심리적 통제가 높으며 또래관계의 질이 낮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은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잠재변인간의 관계는 앞서 서술한 것과 같다.

### 3. 구조모형 분석 :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앞서 서술하였듯이, 측정모형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각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

합하게 측정하고 있음과 각 잠재변인들간에 유의한 구조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 1) 내면화 문제행동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RMSEA = .058, TLI = .956, CFI = .967로 나타나,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5).

변인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첫째, 부모간 갈등은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 $\beta = .25, p < .001$ ),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간 갈등은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beta = -.46, p < .001$ )에,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는 또래관계의 질( $\beta = .34, p < .001$ )에, 나아가 또래관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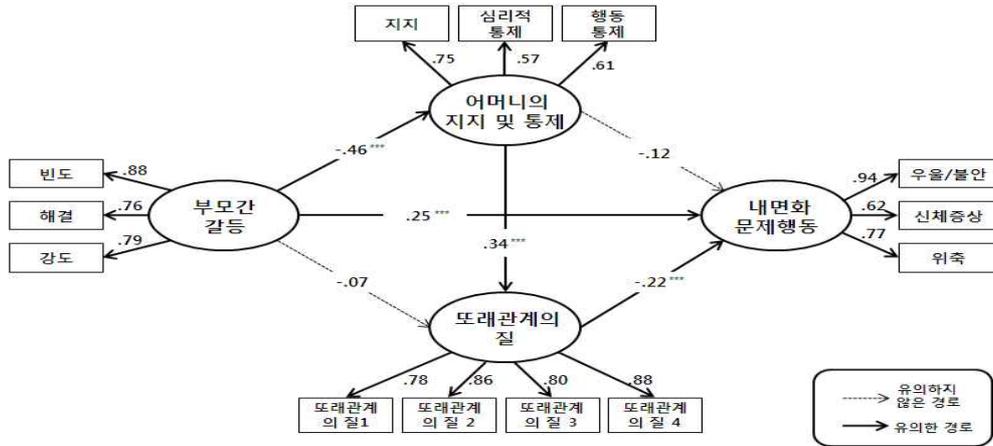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 내면화 문제행동

$\chi^2$	$df$	$p$	RMSEA (90% 신뢰구간)	TLI	CFI
126.906	59	.000	.058(.044-.072)	.956	.967

<표 6>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내면화 문제행동

	B	$\beta$	SE	C.R	$p$
부모간 갈등 → 내면화 문제행동	.227	.245	.063	3.601	***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 내면화 문제행동	-.108	-.119	.072	-1.496	.135
또래관계의 질 → 내면화 문제행동	-.211	-.215	.061	-3.477	***
부모간 갈등 → 또래관계의 질	-.069	-.073	.067	-1.030	.303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 또래관계의 질	.312	.339	.077	4.068	***
부모간 갈등 →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471	-.459	.074	-6.395	***

\*\*\* $p < .001$ .



주) 측정오차항은 생략함.

\*\*\* $p < .001$ .

<그림 2>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질은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beta = -.22, p < .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가 낮아지고, 또래관계의 질이 낮아져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다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간 갈등은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를 통해 내면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모간 갈등은 또래관계의 질을 통해 내면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6). 또한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간 갈등이었으며, 다음으로 또래관계의 질과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순이었다(표 7).

### 2) 외현화 문제행동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RMSEA = .049$ ,  $TLI = .969$ ,  $CFI = .977$ 로 나타나,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

<표 7>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 간접효과 및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부모간 갈등 → 내면화 문제행동	.245	.033	.278	.191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 내면화 문제행동	-	-.073	-.073	
또래관계의 질 → 내면화 문제행동	-.215	-	-.215	
부모간 갈등 → 또래관계의 질	-	-.155	-.155	.143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 또래관계의 질	.339	-	.339	
부모간 갈등 →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459	-	-.459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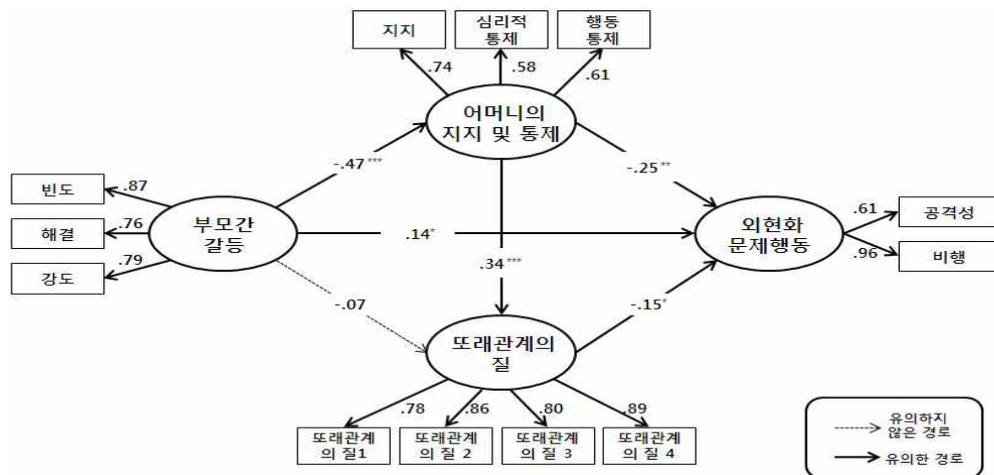
<표 8>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 외현화 문제행동

$\chi^2$	df	p	RMSEA (90% 신뢰구간)	TLI	CFI
89.515	49	.000	.049(.033-.065)	.969	.977

되었다(표 8).

각 변인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3). 첫째, 부모간 갈등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 $\beta = .14, p < .05$ ),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간 갈등은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beta = -.47, p < .001$ )에,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는 또래관계의 질( $\beta = .34, p < .001$ )에, 나아가 또래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 $\beta = -.15, p < .05$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가 낮아지고, 또래관계의 질이 낮아져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다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간

갈등은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beta = -.47, p < .001$ )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 $\beta = -.25, p < .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는 낮아졌으며, 그 결과 청소년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다 많이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부모간 갈등은 또래관계의 질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9>). 또한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이었으며, 다음으로 또래관계의 질과 부모간 갈등 순이었다(표 10).



주) 측정오차항은 생략함.

\*\*\* $p < .001$ .

<그림 3>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9>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외현화 문제행동

	B	$\beta$	SE	C.R	p
부모간 갈등 → 외현화 문제행동	.070	.143	.034	2.055	*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 외현화 문제행동	-.121	-.250	.042	-2.924	**
또래관계의 질 → 외현화 문제행동	-.079	-.153	.033	-2.418	*
부모간 갈등 → 또래관계의 질	-.065	-.069	.067	-.965	.334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 또래관계의 질	.319	.342	.078	4.066	***
부모간 갈등 →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471	-.468	.073	-6.459	***

\* $p < .05$ . \*\* $p < .01$ . \*\*\* $p < .001$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어떠한 경로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부모간 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 경로를 비롯하여, 부모간 갈등이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을 통해,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를 통해, 그리고 또래관계의 질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간접경로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간 갈등이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여, 청소년은 부모간 갈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을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부모간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높고 해결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 자녀는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불안과 같은 내면화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들(김영희·이정미, 2002; 우진영, 1998)과 일치하며, 부모간 갈등에 자주 노출될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들(김민정·도현심, 2001; 양희정, 1999; Grych et al., 1992)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간 갈등에 노출된 자녀는 긴장된 가정의 분위기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특히 본 연구의 세 가지 예측변인들 가운데 부모간 갈등은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청소년이 안전 기반으로서의 가정환경이 위태롭다고 인식할 때 얼마나 커다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지를 반영한다. 또한 청소년은 이러한 스트레

<표 10>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 간접효과 및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부모간 갈등 → 외현화 문제행동	.143	.141	.284	.179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 외현화 문제행동	-.250	-.052	-.302	
또래관계의 질 → 외현화 문제행동	-.153	-	-.153	
부모간 갈등 → 또래관계의 질	-	-.160	-.160	.144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 또래관계의 질	.342	-	.342	
부모간 갈등 →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	-.468	-	-.468	.219

스 상황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비행과 같은 행동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부모간 갈등 시 관찰한 심리적, 언어적 폭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간 갈등은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을 통해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지지와 행동 통제를 덜 보이고 심리적 통제를 많이 보였으며,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을 낮추었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높은 어머니는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인 양육을 하게 되어 자녀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정미·이양희, 2007; 홍주영, 2002)이나 또래관계의 질이 좋지 못한 청소년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들(정성진, 2000; 한현아·도현심, 2008; Demir & Urberg, 2004; Erdley, Nangle, Newman, & Carpenter, 2001)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간 갈등이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된 본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부모가 경험하지 않는 부모보다 자녀에게 덜 지지적이며 자녀의 욕구에 덜 민감하였다는 연구결과들(Davies & Cumming, 1994; Fauber et al., 1990)이나 부부갈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감정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심리적 통제를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들(강차연·장연집, 1999; 노지형·송현주, 2007; Cohn & Cambell, 1992)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특히, 부모간 갈등이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본 연구에서 발

견된 변인들간의 직접적 영향력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는 부부갈등을 겪음으로써 스트레스와 분노,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고통에 몰입하게 되어 자녀의 욕구를 무시하고 방임하거나,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기 쉬운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어머니의 지지와 행동 통제가 낮고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이 낮아졌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지적이고 애정적일수록 청소년이 또래에게 지지적인 행동을 보이며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유윤아, 2005; 윤명주, 2003; Bryant & Elder, 2002)과 일치한다. 가정은 자연스럽게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자녀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학습해 나간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를 낳고, 자녀는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을 또래관계에서 적용함으로써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쉽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또래관계가 강조되는 청소년기의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데 있어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또래관계의 질이 낮을수록 청소년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였는데, 이는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덜 경험하였으며(한현아·도현심, 2008; Erdley et al., 2001), 공격성이나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보였다는 연구결과들(정성진, 2000; 한현아·도현심, 2008)과 유사하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보다는 또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공유하는 활

동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의 또래의 중요성이 확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또래와의 질적 관계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돕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가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부모간 갈등이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를 통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원경·권희경·전제아, 2006)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과는 유사한 반면, 부모간 갈등으로 인해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우울, 불안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들(민하영·김경화, 2007; 이가은, 2008; Buehler & Gerard, 2002)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부모간 갈등은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를 통해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지지와 행동 통제를 덜 하고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로는 부모간 갈등으로 인해 부모는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줄이고 심리적 통제를 증가시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들(Benson et al., 2008; Schoppe-Sullivan, Schermerhorn, & Cummings, 2007)과 일치한다.

부모간 갈등이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앞서 서술한 논의에 이어, 여기서는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은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졌다는 연

구결과들(도현심 외, 2005; Gray & Steinberg, 1999)과 일치하며, 어머니가 지지적이고 행동 통제를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비행, 학교일탈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들(서찬란·이형실, 2006; 전영실, 2002)과도 유사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됨으로써,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지와 행동 통제를 덜 하고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는 것은 청소년의 비행과 같은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에 속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급속히 발달하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에 근거할 때, 선행 연구들(박선영, 2008; 전영실, 2002; Gray & Steinberg, 1999)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부모로서 청소년 자녀가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는지를 감독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할 수 있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와 달리, 내면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해나가고 자율성이 발달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부모의 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양 문화권의 유교 사상은 부모로서의 권위와 가족 간의 위계질서를 중시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서양 문화권에서의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다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간 갈등이 또래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부모간 갈등이 또래관계의 질을 통해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가족기능이 건강하고 또래관

계가 친밀할수록 아동의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이승진·이홍수·이상화·심경원, 2009)와 부모간 갈등의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또래관계의 긍정적 기능이 낮아지고 부정적 기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최지영·박경, 2007)와는 불일치한다. 부모간 갈등과 또래관계의 질간에 개별적으로는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모형에서는 양자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여러 변인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부모간 갈등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점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부모-자녀간 갈등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부모간 갈등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안영희, 2006)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와 유사하게 부모간 갈등보다는 부모가 통제적이고 방임적으로 양육할 때 청소년 자녀는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였던 연구결과(한정은·장영애, 2008)도 보고된다.

결론적으로,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과 같은 요인들이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경로는 유사하나 그 영향력의 수준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경로에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였으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하나의 변인으로 다루기보다는 이를 구분하여 독립된 변인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같은 부모 관련 요인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부모 관련 변인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을 덜 하지만 또래관계의 질 역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시 각각 긍정적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강조하는 부모 대상 프로그램과 동시에 청소년 자신의 또래관계의 질 향상을 돕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청소년 자신에 의해 보고되었다. 이는 동일 보고자의 보고에 의해 변인들간의 관계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의 평가 등 다양한 보고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 점수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러한 연구대상은 임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 집단으로 간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일반집단뿐 아니라 임상집단도 포함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차연·장연집(1999).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51-75.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
- 권영옥·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김민정·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원경 · 권희경 · 전제아 (2006). 부모양육행동, 아동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문제해결력 간의 구조모델. **아동학회지**, 27(3), 67-79.
- 김정란(2003).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심리 사회적 부적응-중학생 자녀의 아내학대 목격과 자녀학대 피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71-180.
- 김주연(2009). 부모의 양육행동, 또래관계의 질 및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침송(2007). 청소년의 우울, 스트레스 대처, 강인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2(3), 587-598.
- 김혜정(2005).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 자기개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지형 · 송현주(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과의 관계. **심리치료**, 7(2), 75-89.
- 도현심 · 김민정 · 박보경 · 황영은(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85-195.
- 민하영 · 김경화(2007).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33-41.
- 박기원(2009).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보경(2002).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영(2009). 어머니의 감독과 청소년의 일탈또래와의 연합, 자아개념 및 외현화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 이은경 · 송주형 · Soenens(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 서찬란 · 이형실(2006). 가족 환경 및 개인 심리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2), 151-162.
- 손석한 · 노경선 · 허묘연 · 정현옥 · 이소희 ·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05-615.
- 안영희(2006). 가족간의 갈등과 중학생의 또래관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희정(1999).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간의 관계 :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 하은혜 · 이해련 · 홍강의(2007).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주)휴노컨설팅.
- 우진영(1998).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부부갈등, 부모-자녀 관계 사이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안진 · 한유진 · 김진경(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유윤아(2005). 결혼가정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명주(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와 초등학생 자녀의 또래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가은(2008). 이혼가정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균(2008). 청소년 비행행동에 대한 부모양육행동과 비행친구집단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7, 121-151.
- 이승진 · 이홍수 · 이상화 · 심경원(2009). 또래 관계 및 가족 기능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가정의학회지**, 30(7), 533-538.
- 이정미 · 이양희(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0(4), 33-58.
- 이혜수(2003).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경원(1997).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분위기가 청소년의 또래공격성 및 또래회생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영실(2002). 자녀양육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경(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성진(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의 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옥분 · 임정하(1997).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1), 163-176.
- 정은희 · 이미숙(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15-126.
- 조혜리(2009). 양육행동, 공감능력, 분노표현 및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정은 · 이지연 · 황상희(2009).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유기공포의 매개효과검증 : 남녀 청소년의 모형 비교.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7(2), 3-16.
- 최지영 · 박경(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자아탄력성과 친구관계 질의 관계. **심리치료**, 7(2), 127-144.
- 한미현(2005).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정은 · 장영애(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및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3), 373-386.
- 한현아 · 도현심(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양육 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 161-177.
- 홍주영(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은영(2008).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친구관계의 질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괴롭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Stol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 (4), 1-151.
- Blodgett-Salafia, E. H., Gondoli, D. M., & Grundy, A. M. (2008). Marital Conflict as a Mediator of the Longitudinal Connections between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Early Adolescent Maladjust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 928-950.
- Benson, M. J., Buehler, C., & Gerard, J. M. (2008). Interparental Hostility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8(3), 428-454.
- Bryant, C. M., & Elder, G. H. (2002). Parental Behavior and the Quality of Adolescent Friendship : A Social-Contextu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676-689.
- Buehler, C., & Gerard, J. M. (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78-92.
- Cohn, J. F., & Cambell, S. B. (1992). Influence of maternal depression on infant affect regulation.

- In D. Cicchetti & S.L. Toyh (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depression* (Vol. 4, pp.103-130). Rochester :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Cummings, E. M., Goeke-Morey, M. C., & Papp, L. M. (2004). Everyday Marital Conflict and Chil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2), 191-202.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emir, M., & Urberg, K. A. (2004). Friendship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8, 68-82.
- Erdley, C. A., Nangle, D. W., Newman, J. E., & Carpenter, E. M. (2001). Children's Friendship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 Theory and Research.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91, 5-24.
-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M. (1999).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s families :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Graham, P., & Rutter, M. (1973). Psychiatric disorder in the young adolescent : a follow-up study.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66(12), 1226-1229.
- Gray, M. R., & Steinberg, L. (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574-587.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 A cognitive 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67-290.
- Grych, J. H., Sie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Gryczkowski, M. R., Jordan, S. S., & Mercer, S. H. (2010). Differential 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9(5), 539-546.
- Hawkins, J. D., Arthur, M. W., & Catalano, R. P. (1995). Preventing substance abuse. In D. Farrington & M. Tonry (Eds.), *Crime and justice* : Vol. 18. Crime preven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m, K. L., Jackson, Y., Conrad, S. M., & Hunter, H. L. (2008). Adolescent Report of Interparental Conflict : The Role of Threat and Self-blame Appraisal on Adaptive Outcom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 735-751.
- Krishnakumar, A., Buehler, C., & Barber, B. K. (2003). Youth Perceptions of Interparen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Youth Problem Behaviors in European-American and African-American Famili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20(2), 239-260.
- Novotny, E. S., & Burstein, M. (1974). Public School adjustment of delinquent boys after release from a juvenile corrective institu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 49-60.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atterson, C. (1982). Morphological characters and homology. In Joysey, K. K. A and Friday, A. E. *Problems in Phylogenetic Reconstruction*. Academic press, London.
- Patterson, G. R., DeBaryshe, D., & Ramsey, E. (1989).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Rodgers, K. B., & Rose, H. A. (2002). Risk and resiliency factors among adolescents who experience marital trans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1024-1037.
- Rogers, M. J., & Holmbeck, G. N. (1997). Effects of interparental aggression on children's adjustment : The moderating role of cognitive appraisal and cop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 125-130.
- Rubin, K. H., & Mills, R. S. (1991). Conceptualizing developmental pathways to in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hood.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3(3), 300-317.
- Schaefer, E. 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6), 552-557.
- Schoppe-Sullivan, S. J., Schermerhorn, A. C., & Cummings, E. M. (2007).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 Evaluation of the Parenting Process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1118-1134.
- Vandell, D. L., & Hembree, S. E. (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 Palmer Quarterly*, 40(4), 461-477.
- Vandewater, E. A., & Lansford, J. E. (1998). Relative influences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onflict on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amily Relations*, 47, 323-330.
- Waldrip, A. M., Malcolm, K. T., & Jensen-Campbell, L. A. (2008). With a Little Help from Your Friends : The Importance of High-quality Friendships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7(4), 832-852.
- Webster-Stratton, C., & Herbert, M. (1994). *Troubled families problem children : Working with parents*. New York : Wiley.

---

2010년 12월 31일 투고, 2011년 3월 14일 수정  
2011년 3월 25일 채택